보석이 치료효과가 있을까?

최원석 / 과학 칼럼니스트

예로부터 보석은 왕의 권위나 다양한 종교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그 화려함으로 인해 아름다운 여인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때로는 여심을 사로잡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도 했다.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석은 장식의 용도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바로 건강을 위한 주술적 의미 또는 치료를 위한 치료석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보석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일까?

〈반지의 제왕〉과 같은 판타지에는 어김없이 요정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요정들은 치료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된다. 그리고 그들의 치료 능력은 보통 보석의 힘을 통해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석이 박혀있는 마법의 지팡이로 마법을 구사하는 마법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보석 중에 치료 능력을 가진 보석인 치료석(healing stone)이 있다고 믿었다. 즉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는 눈병에, 루비는 비장과 간장병에 사용 되었으며, 자수정은 뱀의 해독제로 사용하면 효험이 있다고 여겼다. 또한 산호가루는 광견병 치료제나 지혈제로 사용되기도 했고, 사파이어를 핥으면 똑똑해진다는 처방을 내린 유명한 수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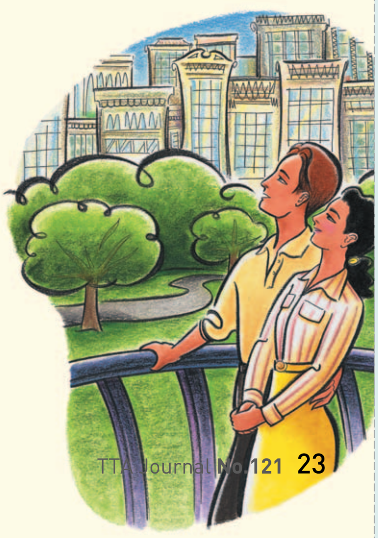
서양에서 전해져 오는 많은 치료석의 이야기 중 보석으로 가장 효험을 본 사람은 아마 클레오파트라일 것이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 앞에서 자신의 진주 귀걸이를 식초에 녹여 마셔버림으로서 그의 마음을 돌렸으니 확실히 복용효과(?)를 본 셈이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클레오파트라는 세계 최초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칼슘 보조제를 복용한 여성이 되었다. 즉 진주는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보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치료석에 대한 믿음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얀마에서는 보석의 치료효과를 너무 맹신하여 루비를 진짜로 몸 속에 박아 넣기도 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스타사파이어를 마법을 막아주는 위력이 있다고 믿고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치료석이 존재하지만 역시 동양에서 치료석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보석은 바로 옥(玉)이다. 중국에서 옥이 사용된 것은 이미 기원전 5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玉'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이 착용하는 구슬이 바로 옥일 정도로 옥은 귀중한 보석으로 대접받았다. 또한 옥은 중국 고대의서인 《황제내경》이나 명나라 이시진의 《본초강목》, 우리나라 허준의 《동의보감》을 통해 약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에는 옥을 깨알만하게 만들어 복용하면 오장육부가 윤택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옥과 경옥은 둘 다 옥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보석 광물이다. 즉 연옥은 네프라이트(nephrite)라는 각섬석이며, 경옥은 제이다이트(jadeite)라는 휘석이다. 중

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경옥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옥이 많이 난다. 허준이 언급한 연옥($Ca_2Mg_5Si_8O_{22}(OH)_4$)의 경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옥을 지니고 있으면 이들 원소들이 몸에 흡수된다는 엉터리 주장도 인터넷으로 떠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마그네슘염은 실제로 변비예방을 위한 하제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그네슘은 칼슘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꼭 필요한 원소로 하루에 2~5mg정도 섭취해야만 한다. 하지만 연옥을 깨알만큼 만들어 먹는다고 흡수하기는 어렵고, 녹색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비싼 옥을 가루로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춘천연옥 증류액인 옥정수를 주사한 쥐가 마약과 니코틴 중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옥정수가 기억과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다. 또한 옥목걸이와 옥반지 등의 옥 장신구가 두통을 감소시켜 준다는 등 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보석가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금과 은이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건강을 위해 사용되었다. 금가루를 넣은 술에서부터 금가루를 뿌린 회와 김밥에 이르기까지 금가루가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여기 저기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이와 같은 '금가루 마케팅'은 금이 《동의보감》에서 한약재의 일종으로 우황청심환을 싸는 등 그 약효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자칫 체내에 축적된다면 피부염이나 신장 장애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물론 금가루로 먹었을 경우 흡수되기 보다는 대부분 체외로 그냥 배출될 가능성이 많아 특별한 약효나 중독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금가루에서 어떤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금 화합물은 결핵 치료제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항함제의 일종인 시스플라틴(cisplatin)은 바로 백금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치료용 귀금속은 바로 은이다. 은화합물인 질산은이 고대 이집트에서 이미 살균제로 사용되었으며, 단지 0.0025%의 농도로도 티푸스균을 2시간 내에 죽일 정도로 뛰어난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 항균 밴드 등에 포함되는 살균 소독제인 설파다이아진(Sulfadiazine)도 바로 은화합물의 일종이다.

고대의 문헌이나 의서에 보석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보석이 치료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옥정수를 이용한 쥐 실험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옥의 치료효과를 믿으며 장신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플라시보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며, 옥으로 만든 찜질방에서 땀을 빼고 난 뒤 더욱 개운하다고 느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루비를 몸에 지녀도 어떤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성형외과에서는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와 같은 보석으로 치료용 레이저를 만든다. 그렇다면 결국 보석에서 나온 빛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된다는 판타지 속의 상상력이 현실로 실현된 것이라고 봐도 좋은 것일까? TTA